

# 순천 신덕지구 배후단지 개발 나선다

### 주거·교육·비즈니스 기능 갖춘 복합단지

### 광양경제청, 이달 29일까지 사업 시행자 모집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 신덕지구 신규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신덕지구내 신대·덕례 배후단지 개발사업(총면적 12.56km) 개발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배후단지 개발은 지난 2008년 착공해 올 상반기 준공예정인 신대 배후단지 공급유지중 90%가 분양되고, 단지내 건설중인 아파트도

인 절차를 마치고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대·덕례 배후단지는 10.55km<sup>2</sup>의 대규모 단지 4개의 단위지구로 분리해 주거와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주거·교육·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업무 용지 등이 들어선다.

또한 용강 배후단지는 2.01km<sup>2</sup>에 대학교, R&D 용지 등 연구시설이 입주해 광양만권에 입주하는 기업과 종사

자, 외국인을 위한 복합적인 배후기능을 제공한다.

최종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개발에 맞춰 친환경적 주거와 교육·연구·비즈니스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배후단지를 적기에 개발해 광양만권 경제청이 한 국 경제특구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국고 전의사업 98건 7409억원 광양시 내년 국비확보 총력

광양시가 2013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광양시는 8월 2013년도 국고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광양시 내년도 국고 건의사업은 총 98건 7409억원(국비 631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은 36건 775억원(국비 369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2월 보고한 국고 건의사업에 비해 18건 1786억원(국비 1352억원)이 증가해 내년 광양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대가 크다.

이날 이상춘 시장은 ▲정부정책과 접목되는 사업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수요 관련사업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 ▲인근 시·군과 연계된 협력사업 등에 주요점을 두고 국비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광양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20억원) 등 재해 관련사업 ▲옥룡 내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22억원) 등 하수도사업 ▲옛 남해고속도로 삼진강교 보수·보강사업(86억원) 등 인근 시·군 연계사업 ▲지역 전략식품 육성사업 등 공모사업(25억원) ▲경전선 폐선부지 녹색문화공간 조성사업(500억) 등이다.

광양시는 3~4월 전남도, 5~6월 중앙부처, 7~9월 기획재정부, 10~12월 국회 등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어 국고건의사업 활성을 펼칠 계획이다.

광양시 이병철 기획예산실장은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비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 새얼굴

### "농산물 유통 혁신으로 자산 늘릴 것"

#### 박상기 고흥 팔영농협 조합장

"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혁신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건전경영으로 조합원 자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지난 7일 실시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상기(57) 고흥 팔영농협 조합장은 "농기계 사업과 연계해 육묘·경운·이앙·수확·수매까지 윈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집진적으로 고령 조합원의 농작업을 대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을 확대하고 팔영농협만의 명품 브랜드를 개발해 친환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조합장은 이번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 4874표중 2738표를 얻었다.

고흥 출신인 박 조합장은 벌교 상고를 졸업했으며 팔영농협 전무 등 35년을 농협에서 근무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iu@



### 관절염, 수중운동으로 극복하세요

고흥군은 관절염 치료와 예방을 위해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종합문화회관 수영장에서 '아쿠아와 함께하는 관절염 수중 운동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은 매주 4회(월·목·화·금)로 나눠 12주동안 무료로 운영할 계

획이다. 수중운동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관절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군은 노인인구의 87%가 관절염 환자로 보통 75세가 넘으면 대부분 만성 퇴행성 변화를 겪게 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의 일환

### 고흥군 노인대상 참가자 모집 매주 4회 12주동안 무료 운영

으로 수중 운동교실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수중 운동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iu@

## 고흥군 축산 신기술 실용화 박차

### 농업기술 실용화재단과 업무협약

고흥군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사장 전운성)과 지난 7일 관내 축산 관련 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의 가치창출 및 농업기술의 실용화 촉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축산 신기술 이전 실용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앞서 한우협회와 한우 사육농가, TMR 사료공장 관계자 등

은 한 자리에 모여 사전 협의를 가졌으며 한우 10농가, 낙농 5농가, 양돈 4농가, 양계 1농가와 TMR 사료공장 1개소가 기술이전을 받기로 합의했다.

기술이전 주요내용으로는 ▲연구 개발된 신기술 보급 ▲농가 실증시험 사업 추진 ▲축산농가 HACCP 인증 기술 지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기술 ▲

축산 융복합 기술 컨설팅 지원 등이 다.

이날 군은 업무협약에 이어 사료값 상승 등 경영난 해소와 한·미 FTA 대응을 위해 축산 관련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축산농가들은 산지 소각 안정을 위해 사육유수 조절과 소 품질 고급화, 조사료 자급화 등 경영비 절감, 소비자 직거래장터 할인판매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iu@

## 전 북

## 순창한우 옛 명성 되찾는다

### 명품 육성 협의회 발족

순창군이 1970년대 한우 우수성이 번성했던 옛 명성을 되찾고, 순창한우 명품화 등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이를 위해 순창군은 '순창 명품한우 육성'을 11개 군정역점사업으로 선정 한데 이어 지난 8일 군 영양회의실에서 수의사, 수정사, 한우농가, 한우단체 등이 참여하는 '순창 명품한우 육성 협의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게 산림축산과장, 위원에는 순정축협, 수의사, 수정사, 순창군 한우사업단, 전국한우협회 순창군지부, 순창군 조사부 경영체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과 축산농가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순창 명품

한우의 보호·육성 ▲우량혈통 보전 및 개량, 생산기반 구축 ▲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및 기술지원 ▲판매·유통망 구축 등 한우 명품화 육성 대안을 마련해 장·단기적인 투자계획을 행정에 적극 반영한다.

특히 한·미 FTA 타결 비준과 소값 하락, 사료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에게 '돈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FTA를 극복한다는 전념이다.

순창군 축정담당관은 "이번에 명품한우를 육성할 명품축산담당 조직도 신설되는 만큼 순창한우의 옛 명성도 되찾고, 한우농가들이 피부에 와 닿는 소득창출이 이뤄지도록 시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1100여 농가에서 2만3000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해 연간 114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순창 훈몽재에 모인 전국 유학 대가들

순창군은 지난 8일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복원한 훈몽재에서 전국 유학 대가와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회(講會)를 가졌다.

이날 강회는 사서심경 가운데 평소 애송했던 경전을 외우는 윤장을 비롯해 문답식의 학문진취도 시험 순으로 진행됐다.

순창군은 지난 8일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복원한 훈몽재에서 전국 유학 대가와 대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회(講會)를 가졌다.

이날 강회는 사서심경 가운데 평소 애송했던 경전을 외우는 윤장을 비롯해 문답식의 학문진취도 시험 순으로 진행됐다.

## 도, FTA대비 친환경농업 571억 투입

### 유기농자재 공급·무농약 인증 농가 등 지원

전북도는 올해 친환경농업 분야에 총 571억원을 투자해 농업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전북도는 "올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자원순환형 유기농자재 공급,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등 3개분야 10개 단위사업을 지원, FTA 대비와 친환경농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13억원으로 55%를 차지하며 도비 47억원(8%), 시·군비 181억원(32%), 자부담 30억원(5%) 등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4개 사업에는 147억원이 투입되며, '자원순환형 유기농자재 공급' 3개 사업에는 371억원이 투자된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3개 사업에는 53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등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 광역 친환경농업 단지(5개소)·친환경농업 지구조성(3개소)·친환경공동이용 시설지원(40개소)을 비롯해 토양개량제·유지질비료·녹비작물 종자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등을 지원한다.

도는 현재 7개소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오는 2015년까지 10개소를 조성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전라기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수도작 위주의 친환경농업을 채소·감자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작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채소의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무농약 이상 인증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친환경유기인증 확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 인증 확대 사업에 65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감소보전 현실화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 밖에 도는 친환경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무농약 이상 쌀을 전년도 1857t을 공급한 데 이어 올해에는 2500t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단 신

### 군산시 올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임춘희)와 군산대 아동가족학과는 올해 3차에 걸쳐 2012년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1차 6~17일 ▲2차 3월 19~4월 6일 ▲3차 7월 9~20일이며,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www.socine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사학 이해과정'으로 구성된다. 모든 과정 수료시 ▲귀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대기 기간 단축 등 혜택이 주어진다. 063-443-0053 /전북취재본부=박금성기자 nogusu@

### 김제시 사이버평생학습센터 콘텐츠 개편

김제시는 최근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학습 콘텐츠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모바일 학습콘텐츠를 탑재해 컴퓨터가 없어도 사이버 학습이 가능해졌다.

시 사이버학습센터는 ▲유아·

아동, 자녀교육 과정 보강 ▲공인 중개사, 행정직 과정 등 취업과정 최신 버전 업로드 ▲깊이 있는 문화학습 강좌 ▲모바일 학습과정 서비스 개시 등 총 9개분야 169개 학습과정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 남원 허브밸리 내 카페테리아 관광객 쉼터로

'제1회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남원 허브밸리 내 카페테리아가 탐방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카페테리아에는 자생허브 전 시와 지리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즈마리, 페퍼민트, 레몬밤 등 건강기능성 허브차를 판매하는

등 추위에 지친 등산·관광객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고 있다.

또 허브체험관에는 허브분화 만들기와 비누만들기, 향초만들기 등 허브밸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허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희기자 bs8787@

### 고창 다문화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장관상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강연희)가 지난 7일 여성가족부 주관의 2011년도 다문화화정 평가결과 전국 군지부 우수센터에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09년 개소한 지원센터

는 현재 방문지도사 13명과 바우처사업 관리자 2명, 센터 프로그램 운영자 7명 등 총 22명이 근무하면서 관내 360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